외교부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21-797
배포일시	2021. 10. 16.(토)	담당부서	기후환경과학외교국
담당자	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/ 02-2100-7711		

최종문 제2차관, 2021 북극서클 총회 참석 결과

- 북극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·기여 의지 표명 -

□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0.14.(목)-10.17.(일) 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중인 2021 북극서클 총회*(Arctic Circle Assembly)에 참석하였다.

* 북극서클 총회는 2013년 이래 매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최대 국제 포럼으로, 정부 관계자, 기업, 연구기관, 원주민 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, 과학기술 연구,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폭넓은 북극 이슈를 논의

□ 최 차관은 10.14.(목) 총회 연설을 통해 북극의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, 한국이 그간 펼쳐온 북극 관련 활동*들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.

* 북극다산과학기지 설립(2002), 쇄빙연구선 '아라온호' 진수(2009),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(2013) 등

○ 특히 10.14.(목) 발효된 「극지활동진흥법」에 따라 향후 한국의 극지 활동이 인류 공동의 이익 및 극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임을 강조하고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, 수소에너지 기반 기지 건설 협력 등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체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다.

○ 아울러 한국이 안정적 북극 거버넌스를 위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, 북극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며, 북극을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

□ 총회 연설에 이어 진행된 '한국과 북극 : 미래를 위한 관점(Korea and the Arctic : Perspectives for the Future)' 제하 별도 세션에서는 환경, 과학기술,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북극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□ 한편, 최 차관은 금번 총회 참석 계기 10.15.(금) 구드라우구르 또르또르다르손(Guðlaugur Þór Þórðarson)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을 면담하고, 북극서클 의장인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(Ólafur Ragnar Grímsson) 前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예방하였다.

○ 또르다르손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△2022년 한-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 계기 기념사업(고위인사 교류 및 기념행사), △상호 교역·투자 확대, △양국 간 관광 활성화, △국제 선거 등 다자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.

○ 그림손 의장 예방 시에는 △북극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서클 총회의 역할과 의의, △북극 지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.

□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인류 공동의 과제이기도 한 북극권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 및 기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관련 사진 5매 (총회 연설, 별도세션, 양자 면담 및 예방). 끝.